

#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윤율식 의무부총장님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저희는 환자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대의료원은 정말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정릉 메디사이언스 파크 건립, 안암병원 첨단의학센터 건립, 구로병원 미래관 건립, 안산병원 미래의학관 건립으로 대한민국 초일류 병원으로 도약했습니다. 나아가 세계속의 대학병원으로 거듭나며 초격차연구의료기관, 미래의학기관으로써의 창창한 앞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병원에서 일하는 저희들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서울에서 유일하게 파업을 하는 병원이 될수 밖에 없었을까요?

-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일했다는 말을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 근무 시작 전 들고 온 커피가 그대로인 채로 근무가 끝나버린 현실.
- 생리휴가를 쓰고 싶어도 인력이 없어 눈치만 보다 결국 쓰지 못한 현실.
- 어제는 함께 일했던 비정규직 동료의 얼굴을 오늘은 보지 못하는 현실.
- 상급종합병원임에도 간호사 1명이 많게는 환자 15명의 처치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
- 퇴직한 자리를 10년째 비워놓고 남은 사람들에게 업무를 감당하게 하는 현실.
- 인력을 모집해도 고되다고 소문이 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병원이 된 현실.

고대의료원의 눈부신 영광 뒤에 어두운 그림자로 남은 것은 직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처참한 근무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무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대의료원의 주인이 우리였기에, 고대의료원의 구성원이 우리였기에 당연하게 그림자 속에서 희생해왔습니다. 그렇게 참고 참으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은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직원들의 행복을 잠시만 멈춰서 의료원을 위해 참아달라’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못 버틴다.”, “이러다 정말 죽겠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대의료원을 다니며 마음속으로만 외쳤던 그 절규가 이제는 정말 현실이 되어가는 고대의료원을 보며 더 이상 안된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들의 고충을 전달했지만  
의료원은 ‘인력충원 없음’, ‘임금 2.5% 인상’ 을 제외한 어떠한 안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고충과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의료원은 ‘임금 교섭만 있는 해’ 라는 이유로 인력충원도, 근무환경 개선도, 그 어떠한 것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인상안 또한 본교섭에서는 단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고 파업 직전인 7월 10일 실무교섭을 통해 밝힌 2.5% 인상이 전부였습니다. 더욱이 노동조합이 파업을 돌입한 지 6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진일보된 안은커녕 같은 입장만을 고수하며 파업을 유도하는 것이 노동조합인 것 마냥 노동조합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타결안을 내지 않고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의료원입니다.

그동안 의료원의 미래만을 위해 내팽개쳐진 우리의 일터는 지옥입니다.

이제는 의료원의 미래가 아닌 직원들과 환자·보호자들의 미래를 위한 현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고대의료원에 뼈를 묻을 평생직장,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파업에 나선 것입니다.

환자·보호자에게는 더 나은 진료시스템과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파업에 난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이 고대의료원의 낡은 운영체계를 바꿀, 노사가 상생하는 문화로 바꿀 골든타임입니다.

의무부총장님!

노동조합의 요구는 너무나 절박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꼭 필요한 요구입니다.

고대의료원을 찾는 많은 환자·보호자의 걱정과 우려를 듣고 있습니다.

노사의 대화는 의료원이 결단하고 직원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빨리 환자·보호자의 곁으로 돌아가 본분을 다 하고 싶습니다. 고대의료원의 대전환을 맞을 지금 이 소중한 시기, 의무부총장님께서 파업사태를 풀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해법을 듣고 빨리 교섭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2023년 7월 1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고대의료원지부**